

# 羊은 대세지보살의 화신...세상사 보살펴

## 계미년 불교略史

▲623년, 백제 승려 관록(觀鞠), 일본에서 첫 승정(僧正)의 자리에 올랐다. 소토쿠(聖德太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 승려 혜자(惠慈) 입적하다.

▲923년(고려 태조 6), 화엄종을 통합한 원통(圓通)수좌 균여(均如)가 태어나다. 윤집(尹質)이 후량(後梁)에서 오백나한 화상(畫像)을 가지고 귀국해 왕에게 바치니 왕건은 이를 해주 승산사에 봉안토록 지시.

▲1163년(고려 의종 17), 백련사 결사운동을 일으키고 천태종을 크게 중흥시킨 원묘(元妙)세(世)가 태어났다. 의종은 명인전에 장경도랑을 베풀어 분향하고 흥원사에서 화엄도랑을 크게 열었다.

▲1223년(고려 고종 10), 최우가 황금으로 13층탑과 꽃병을 만들어 흥양사에 봉안하였는데 무게가 2백 근이나 나갔다고 한다. 고종은 내전에서 담론법석(談論法席)을 베풀고, 수문전에서 불경도랑, 제석도랑, 소제도랑을 베풀었다.

▲1283년(고려 충렬왕 9), <삼국유사>를

균여·요세스님 등 탄생

영조, 스님 한양서 쫓아내

사찰에 위패 봉안 금지

지은 일연 스님이 국존(國尊)에 책봉. 왕이 업승(業承)·공유에게 명하여 현화사를 보수하고 남계원과 왕륜사의 석탑을 수리하게 했다.

▲1343년(고려 충혜왕 복위 4년), 오교양종 일곱 절의 토지와 선대의 공신전을 내교(內廟)에 귀속시켰다.

▲1403년(조선 태조 3), 의정부의 건의로 절에 속한 노비의 수를 대폭 감축했다.

▲1463년(조선 세조 9), 건경도감에서 <묘법연화경언해> 7권을 간행하여 왕에게 바침. 12월에는 승니(僧尼)가 죄를 범하면 먼저 보고한 뒤에 형을 가하게 하고, 관리가 출가자를 능멸하면 죄가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1763년(조선 영조 39), 한양에 있는 승려들을 내쫓고 각 도의 절에 위패 봉안을 금지했다. 벽하대우(碧霞大愚)와 화월성눌(華月聖訥)이 입적.

▲1883년(조선 고종 20),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여 조대 종정에 취임한 법운 박대련 스님이 태어났다. 도암인정(道巖印淨)과 보운석일(寶雲碩一), 영산경순(影山敬淳), 용악보위(龍岳普衛)가 입적.

▲1943년, 범어사 금강불교전문강원이 원장이던 김법린이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 폐원 당함.

계미년(癸未年)인 올해는 양의 해다.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여덟 번째가 바로 양이다. 십이지신장(十二支神將)이 언제부터 불교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십이지라는 개념은 중국 은대에서 시작됐으나 이를 방위나 시간에 대응시킨 것은 대체로 중국 한대 중기의 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12가지 동물과 대응시킨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불교 전래 이후로 알려져 있다. 즉 부처님이 약사여래의 본원공덕에 대해 설할 때 12야차대장이 크게 감명을 받아 12대원을 행할 것을 서원하였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설명이다.

말이 아미타불의 좌측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의 6현신 중 하나라면 양은 아미타불의 우측 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의 화신이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보살로, 이 넓은 우주의 모든 별들과 인간 세상을 빠짐없이 살펴서 모든 중생들의 선악을 아미타불에게 보고한다. 보고하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별마다 중생들의 마음과 생활이 다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달라서 그 일은 여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별들 가운데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일이 많았기에 직접 내려와 가까이서 관찰하고 파악하기로 하였다. 잠시도 쉴 새 없는 바쁜 몸이어서 항상 분주하였고, 잠시도 한곳에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대세지보살의

>이나 초기불교의 <장아함경> 정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인 '화택의 비유(火宅喻)'에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등장한다. 양거(羊車)·녹거(鹿車)·우거(牛車)는 각각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의 3승(三乘)

중생은 고통이 몸을 끊을 때 소리를 내어 말하고자 하나 허가 돌아가지 않아서 마치 염소가 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양명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에는 '영양(羚羊)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아흔여덟 가지 우화를 모은 <백유경>에서는 '양 치는 사람의 머리석'이란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사찰 가운데에는 조계종 제18교구본사인 백양사에 양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온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백양사는 1034년

중연(中延) 스님이 중창하면서 '정토사'라고 이름을 고쳤다. 조선 선조때 환성(喚醒)스님이 중건하면서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환성이

플려와서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갔다고 해서 절 이름을 백양사(白羊寺)라 바꾸고 스님의 법명도 환양(喚羊)이라 하

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찰 창건 설화를 연구했던 동국대 김승호(국어교육과) 교수는 "목축이 성행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는 양과 관련된 전설이 적은 편이다"며 "불교와 관련된 사료도 극히 적어서 백양사가 거의 유일한 예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 아미타불 우협시보살

### 잘못된 것 고쳐주고 잘한 것 격려하기도

지혜와 한량없는 권위는 그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경전 속에 양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승불교 경전인 <법화경



◁만봉스님 작 '양'

## 평화·순종 상징, 양꿈 대길몽

### 한국인과 羊



◁김유신묘 십이지신상 중 양

십이지의 여덟 번째 동물인 양은 시각으로는 오후 1시에서 3시, 달로는 음력 6월에 해당하는 시간이며, 방향으로는 남남서를 지키는 방위신이다.

미지를 대표한다. 양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도 우위 다름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고 들지 않는 유순한 동물이다.

더구나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역사 속 생활 용구에 표현된 양의 형상이나 문양에서 양이 벽사(辟邪)·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나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 치는 일이 토착화되지 못해서인지 양과 관련된 유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삼국시대부

## 조선태조 이성계 왕위등극 전 양꿈

### 생활용구 속 羊은 벽사·길상 의미

터다. 양 관련 유물로 대표적인 것은 낙랑 시대의 양모양 패옥과 양 청자, 통일신라시대의 십이지 추 등이 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양의 성격이 순박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양띠도 온화하고 온순하여 양 띠는 부자가 못된다는 속담이 전해올 정도다"고 말했다.

양은 때로 경솔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양 가죽 천 개가 여우 가죽 한 개만 못하다' '양으로 이리 부리게 한다' 등의 속담이 전해온다.

## 경전 속 羊이야기 적어

### 羊수레 성문에 비유 백양사 양 설화 유일

을 비유한 것이다.

<장아함경> '세기경(世紀經) 지옥품'에는 지옥의 10가지 종류를 설명하면서 양명(羊鳴)지옥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지옥에서 죄를 받는

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찰 창건 설화를 연구했던 동국대 김승호(국어교육과) 교수는 "목축이 성행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는 양과 관련된 전설이 적은 편이다"며 "불교와 관련된 사료도 극히 적어서 백양사가 거의 유일한 예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 석탑·부도·불화에 등장

십이지신상은 약사여래의 권속으로 약사여래도에 호법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십이지신상 가운데서도 탑이나 부도, 불화 등에 나타나는 십이지는 약사여래 십이지신상과 관련된 것이다.

탑을 만들 때 그 기반부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하는 것은 통일신라 이후 8세기 중반부터로 경주 원원사지 삼층석탑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원원사지 동, 서 삼층석탑의 기반부 상대 중석에 새겨진 십이지상이나 화엄사 서오층석탑, 경북 영양 화천

대좌로 표현된 동물 중에 양이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불화에 표현될 때는 약사불의 양쪽에 6명씩 무기를 들고 무장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통도사 약사

### 불교문화재속 羊



◁경북 월성 하구리 폐사지 출토 십이지신상 중 양

## 통일신라 이후 석탑기단부에 새겨

### 불화엔 약사불 양쪽 6명 무장한 모습

동 삼층석탑, 경북 안동 임하동 삼층석탑의 기반부 하대 중석에 새겨진 십이지상은 모두 약사 십이지신을 도상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 들어서에는 예전 개심사지 오층석탑 등이 현존하는 예이다. 부도에 십이지신상을 새겨 넣은 것은 울산 태화사지 부도가 대표적이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십이지신상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양을 표현한 것은 극히 드물다"며 "감은사지 사리기에는 사천왕상의 발밑에

불화, 직지사 약사불화가 대표적이다. 양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상으로 표현될 때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탑에 십이지신상을 새기는 기법은 능이나 무덤을 지키는 호석에도 영향을 주어 구릉형의 무덤 밑부분을 원형으로 돌리고 각각 십이지신상을 안치하기도 한다. 김유신묘, 진덕여왕릉, 경덕왕릉, 현강왕릉 등이 대표적이다.